

정읍 국가유산 활용 문화 콘텐츠 개발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 선정
향교서원·고택종갓집 활용 등
3개 사업비 2억3000만원 확보



정읍시의 국가유산 활용사업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이 황도현전적 내 전봉준장군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2025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을 통해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시는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 이는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 성과가 바탕이 됐다.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시는 동학농민혁명, 내장사, 김명관고택을 주제로 ▲생생 국가유산(다시 피는 녹두꽃) ▲전통산사 국가유산(나를 찾는 명상 순례) ▲고택종갓집 활용(1784년, 정읍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등 3개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접근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정읍의 고유한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요소를 통합해 특별한 매력을 창출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다음달부터 농가에 유용미생물 자동 공급

농기센터, 2억1800만원 투입
자동시스템 구축...효율성 향상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 생산설비. <정읍시 제공>

정읍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미생물 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공급받게 됐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총사업비 2억1800만원을 투입해 '유용미생물 자동공급시스템'을 구축, 오는 12월부터 자동공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혼합균 등 친환경 유용미생물 5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2865농가에 224t을 공급했다. 이 미생물들은 작물의 생육 촉진과 품질 향상, 비료 효율성 증대, 가축의 소화 흡수율 향상에 효과를 보여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미생물 공급 방식은 5l 파우치 포장 형태였지만 자동공급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농가가

필요한 만큼 5l부터 원하는 양을 개인 통에 담아 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대면 키오스크 주문 방식을 채택해 중심 시간 등 휴무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업기

“고창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줄이어

군민·어린이집 등 십시일반...미래 주역들에 희망 메시지

고창군장학재단에 고창인재 키우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진행된 장학금 기탁식에는 아이캔어린이집(원장 이미숙) 원아 일동 100만원, ㈜아이

엘(대표 안정민), 300만원, 신림면 이동원 씨 300만원, 고창군 육계지부(지부장 강충식)가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고창 발전을 위한 미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아이캔어린이집 원아들이 경제교육 후 가계 운영 수익금을 기부하고, 고창군 육계지부는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기탁으로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기금은 다양한 장학 사업에 사용돼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정령치 순환버스' 단축 운행

동절기 하루 6회→3회 운행...내년 3월까지



남원시 정령치 터널을 빠져 나오는 '정령치 순환버스' 모습.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동절기를 맞아 하루 6회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을 한시적으로 3회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남원역에서 정령치를 운행하는 관광 특화 교통수단이다. 지난 2019년 첫 운행을 시작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1만8000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했다. 하지만 도로 결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도로 통행 제한에 따라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하루 3회 달구까지만 운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운행 노선은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령치 순환버스를 단축 운행하게 돼 아쉽지만 내년 정상 운행 재개 후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보훈회관 착공...내년 10월 완공 목표

교촌리 일원 49억 투입

고창군 보훈회관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고창읍 교촌리 일원 보훈회관 신축부지에서 심덕섭 군수와 조민규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관내 8개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보훈회관 기공식이 열렸다. 총 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훈회관은 지상 3층, 연면적 994.18㎡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기존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 보훈단체들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군은 보훈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을 주제로 한 전시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해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안전하고 튼튼한 시공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훈가족의 복지와 보훈단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필리핀 사블라얀 계절근로자 고용



지난 25일 필리핀 사블라얀시청에서 열린 남원시와 사블라얀시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업무협약식에서 양 도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내년부터 희망 농가에 배치

남원시가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전남 필리핀 사블라얀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원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은 지난 2021년 포괄, 2023년 라오스에 이어 3번째로 계절근로자 송출국가의 정세 변화 등으로 인

한 제한조치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필리핀 계절근로자는 내년부터 고용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도입·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계절근로자의 통역 지원,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필리핀 사블라얀시는 우수 인력을 선발해 남원 농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국 전까지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